



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편집부장)

축산기계의 위치

축 산업은 분명 농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농산물 가공업 쪽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 3월에 단행한 '93년도 농업기계 지원공급 요령을 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축산기계에 대한 명시가 없다. 이미 농기계 반값 공급 대상에 축산기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를 낸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 영세율적용은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도 값의 범위에서 해당이 안되니, 축산기자재협회가 농기계과 소관이 아니라서 곤란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는 후문을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축산업이 농업이면 그에 필요한 기계도 당연히 농기계이지 축산기계 운운하는 것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2 조 1항을 왜곡하는 일이라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설령 축산기계는 값이 비싸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후 행정 조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은 경종을 위해 공급되는 농기계만을 사용하여 농장경영을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치 산업이라고까지 표현해도 실정법상 엄연히 양계업을 포함한 축산업은 농업이고 축산농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농민(농가)이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서라도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농민이 사용하는 농기계라도 축산기계는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촉진을 위해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 그로인해 대외 수입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고 국내 기자재 업체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외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축산업에 대한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져야 하리라고 본

다. 제조업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니라면 정의한대로 농업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확실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의 없는 실행은 있을 수 없고, 정의된 실행은 반드시 이행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인 만큼 때가 늦지 않도록 축산업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노계의 설 땅

일생동안 알을 낳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농장문을 나서야 하는 노계가 마지막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 도계장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농번기나 육질의 명성도로 도시 시장에서 수요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전용 육계에 밀려 가공원료육으로 활용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노계(산란계, 종계)육은 약 25,000톤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노계수로 환산하면 약 3천만수를 넘는다. 가공육의 수입개방조치 이후 칠면조육을 위시하여 오리육, 거위육, 꿩육, 메추라기육 등이 '92년말에 총 19,000톤이 수입되어 가공육으로 사육되었다.

결국 국내산 3천만수분의 노계육이 서서히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는 징조인 것 같아 우려가 되고 있다. 이웃 일본의 노계육이 수당 40엔 정도에 거래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92년도에 이같은 현상을 우리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노계 2천만수분의 가공육이 수입되고 있는데 아직도 채란업자들은 노계 팔아 병아

리 2마리 사고, 잘하면 증추와 맞바꿀 수 있으려니 하고 속편한 기대에 젖어 있다.

그러나 외국산 칠면조육이 정육 kg당 1,600원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91년도의 국내 노계정육시세는 kg당 약 2,000원선을 유지하였고, '92년에는 1,200원에서 2,000원까지의 큰 폭의 변화를 보인점 등으로 미루어 수입가금육이 노계육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노계육 시장을 지키는 것은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한 가격을 수입육과 비등하게 맞추어 나가야 하는 가격경쟁 뿐이다. 일단 칠면조육의 수입가격이 정해진 이상 노계가격도 이와 비슷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출하량이나 출하가격을 협의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계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운명으로까지 빠져들 공산이 크다. 매년 육가공품의 소비는 증가해가고 있다. 그에 비해 원료육의 조달실정은 원활한 편이 되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사료공장을 가지고 양축농민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내세우는 기업도 가공육 공장을 위해서는 수입을 앞다투어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향후 냉동육이 개방되면 아예 그들은 사료공장을 수입축산물 재처리 공장으로 전업하지 않을까 우려 아닌 우려가 되고 있다.

연중 출하되는 3천만수의 노계를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양계인들은 다시금 생각을 해 볼 때이다. **양계**